

ECDO 데이터 기반 프라이머 파트 1/2: 발열성 핵-맨틀 분리 장니베코프 진동 (ECDO) ”지구 뒤집힘” 이론의 현재 이해

준호

웹사이트: sovrynn.github.io

ECDO 연구 저장소: github.com/sovrynn/ecdo

junhobtc@proton.me

Abstract

2024년 5월, “The Ethical Skeptic”이라는 필명의 온라인 저자가 발열성 핵-맨틀 분리 장니베코프 진동 (ECDO)이라는 혁신적인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55]. 이 이론은 지구가 이전에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회전축의 변화를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회전 관성으로 바다들이 대륙을 넘쳐 흐르게 하여 전 세계적인 홍수를 유발했다고 제안합니다 [58]. 또한, 이 이론은 또 다른 이러한 뒤집힘이 임박했을 수도 있다는 설명적 지구물리학적 과정과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대재앙적 홍수와 종말 예측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ECDO 이론은 과학적, 현대적, 다학제적, 데이터 기반 접근을 통해 독특하게 설득력 있습니다.

이 논문은 ECDO 이론에 관한 6개월간의 독립 연구 [28, 63]에 대한 두 부분으로 구성된 요약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주요 사항을 강조합니다:

1. ECDO와 유사한 ‘지구 뒤집힘’이 인류의 최근 역사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이는 홍수 신화와 광범위한 대륙 홍수의 지질학적 증거로 증명됩니다.
2. 과거 지구 뒤집힘의 대략적인 방향과 규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최근의 자자기 및 지구물리학적 데이터는 또 다른 지구 뒤집힘이 임박했을 수도 있으며, 기후 변화가 인간이 아닌 지구 내부의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ECDO 이론이 제안한 “지구 뒤집힘”的 원인 물리학을 다룹니다.

이 논문에서 저는 엄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이론의 설득력 있지만 추측적인 부분을 피하며, 인류가 긴급히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 주제임을 강조합니다.

1. 소개

대홍수의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 사실, 그것은 전 세계 모든 주요 문화와 문명 초기 시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7개의 홍수 이야기를 모아 시각화한 결과 [64], 실제로 모든 지역에서 홍수 이야기가 발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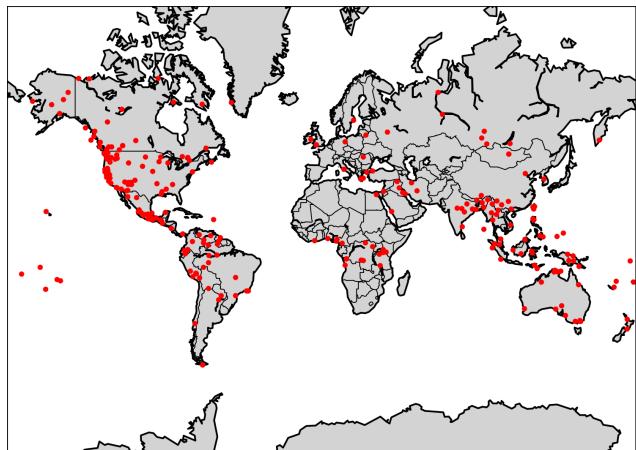


Figure 1. 전 세계의 홍수 이야기 위치 [64].

이 홍수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대륙을 청소하는 대재앙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 미국 원주민의 대재앙 이야기

미국 원주민 이야기에는 지구 대재앙에 대한 가장 생생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동부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미국 원주민 부족인 호피족은, “..Sótuknang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한 지하 세계를 개방하도록 개미 사람들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지하에 도착하면, Sótuknang은 지구가 올바르게 회전할 수 있도록 세계 축의 남북 끝에 배치된 쌍둥이인 Pöqáñghoya와 Palöngawhoya에게 그들의 임무를 떠나도록 명령했습니다. 쌍둥이가 그들의 임무를 거의 떠났을 때, 세상은 제어할 사람 없이 균형을 잃고, 미쳐서 회전한 후 두 번 구르며 뒤집혔습니다. 산들이 큰 소리와 함께 바다에 빠졌고, 바다와 호수가 땅을 넘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차갑고 생명이 없는 공간을 짚주하면서 단단한 얼음으로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71].

이 이야기들은 홍수의 거대한 규모를 정확하게 묘사하

며, 대양이 오르고 산 최고봉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잠기게 했다고 전합니다. 워싱턴 주에 사는 스코코미쉬 인디언은, “위대한 영혼이 사람과 동물의 사악함에 분노하여 모든 나쁜 존재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후 위대한 영혼은 타코마 산(레니어 산)의 눈선까지 물이 차오르게 하여 모든 나쁜 사람과 동물이 익사하고, 비가 그치자 물이 천천히 빠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 동물은 다시 내려 왔습니다” [64]라고 전합니다. 참고로, 레니어 산은 해발 4392.5m의 활화산입니다.

워싱턴 주 마카족의 홍수 이야기에서는 ”매우 따뜻한” 물의 단계 홍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이는 일반적인 홍수가 아님을 나타냅니다: ”바다가 처음에는 높은 파도로 케이프를 차단했지만, 4일 후에는 다시 물이 빠져 네아만을 드러냈습니다. 물이 다시 오르고 산 꼭대기만 남길 정도였습니다. 물이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물건을 카누에 싣고 북쪽으로 이동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카누가 끼어 사망했습니다. 4일 후 물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사람들은 북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곳에 그들의 후손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64].

1.2. 중국의 대재앙 이야기

다른 쪽 대서양 건너편에서, 현대 중국 문명은 대홍수로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기원전 2000년 경에 존재했다고 추정되는 하왕조는 대홍수를 막은 우왕에 의해 세워졌다 [37]. 그의 시대에, ”...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그때는 10일 동안 해가 지지 않았고, 숲이 불타오르며 끔찍한 벌레들이 대량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하늘에 달을 정도의’ 거대한 파도가 중국 대륙을 덮쳤다. ’물이 높은 산 중턱 까지 차올라, 산기슭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황제는 ‘범람하는 물의 범람으로 인한 파괴가 빈번하였으며, 그 광대한 범위는 언덕을 감싸고 높은 곳을 넘어서 하늘까지 위협한다’고 말했다. 황제는 산 사이의 계곡에 간힌 물의 출구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명령했다. 많은 해동안 사람들은 평원과 계곡의 물을 채널을 파서 배수하는 방법으로 물을 빼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당한 수년 동안 모든 노력이 헛되었다. 이 중요한 대작업을 담당한 장관 쿼는 실패한 이유로 처형되었고... 오직 그의 아들 우만이 땅을 배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업적은 매우 높이 평가되어 우는 왕순의 뒤를 이어 중국의 황제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68].

중국뿐만 아니라, 대홍수 동안 지구의 자전이 변했을 것이라는 암시로, 기본 방향과 해와 달의 움직임을 재측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 황제는 학자들을 중국의 여러 지역과 인도차이나까지 파견하여 해의 뜨고 지는 방향과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북쪽, 서쪽, 동쪽, 남쪽의 위치를 알아내도록 하였다. 그는 또한 그의 천문학자들에게 계절의 지속시간을 알아내고 새로운 달력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야우[야후]는 그의 경건한 하늘에 부응하여 해, 달, 별, 황도대의 움직임과 모습을 계산하고 그리도록 허[호]에게 명령하였고, 그 계절을 백성에게 공경스럽게 전하게 하였다”” [68].

중국 역사에서 대재앙의 기록은 실제로 하왕조 이전부터 시작되어 삼황오제 시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14].

삼황 중 하나인 여와는 지구의 회전이 변한 대재앙 중에 홍수를 멈췄다고 전해진다: ”더 힘이 센 두 신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들은 싸움으로 결판을 내기로 했다. 물의 신 공공이 패배하고 있을 때, 그는 부주산, 즉 하늘을 지탱하는 기둥에 머리를 부딪쳤다. 기둥이 무너져 하늘이 북서쪽으로 기울고 지구가 남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끝이 없는 화재, 광대한 홍수, 그리고 맹렬한 식인 야수들이 나타나는 등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였다. 여와는 거대한 거북의 다리를 잘라 낙마한 기둥을 대신하도록 하고, 일곱 가지 색의 돌로 부서진 하늘을 봉합하여 상황을 완화했지만, 기울어진 하늘을 완전히 수정할 수는 없었다” [74].

1.3. 유럽, 마야, 중동 및 동남아시아의 재앙 이야기

이 논문 내에서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재앙 이야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가진 몇몇 다른 유명한 문화들을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그리스 문학에는 테우칼리온, 오기케스, 다르다누스의 세 가지 홍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61, 31]. 전자의 경우, ”9일간의 홍수 후, 세계는 파괴되었고 방주는 파르나소스 산 꼭대기에 머물렀다”, 이 산의 최고 고도는 2,457미터이다 [7]. 마야 문학은 현재 해가 나오기 전 네 개의 다른 태양이 있었다고 믿으며, 네 번째 태양 칼치우틀리쿠에의 시대는 기원전 3100년에 세상을 파괴하는 홍수와 현재 다섯 번째 태양의 탄생으로 끝났다고 믿는다 [38]. 중동에서는 성서 연대기에 노아의 홍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바벨로니아의 시인 기르가 메쉬 서사시도 유사한 이야기를 전한다 [20]. 동남아시아 문화도 홍수 이야기가 풍부하다 -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오트 다눔 사람들은, ”거대한 대홍수가 많은 사람들을 물에 잠기게 했다. 몇몇 사람들은 배를 타고 물 위에 남아 있는 유일한 산꼭대기로 도망쳐 생존했다. 그들은 홍수가 가라앉을 때까지 산 위에서 석 달간 머물렀다”고 말한다 [64]. 그들이 살고 있는 보르네오 섬의 최고 고도는 4,095미터이다.

1.4. 통계적으로 분석한 재앙 이야기

분명히, 이러한 이야기들은 종종 다른 종류의 지구 물리적 대재앙과 함께 발생한 홍수를 묘사하고 있다. 117개의 재앙 이야기에 대한 분석 (표 1)은 화재 폭풍, 지형 변화, 지구의 자전 변화가 종종 대홍수와 함께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2]:

여러 독립적인 문화에서 발생한 홍수 이야기는, 다른 재앙 발생과 일치하는 이야기와 함께 제시됨으로써, 이러한 홍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재앙의 직접적인 기록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해양 홍수에 대한 물리적 증거

홍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것은 지구 대륙 표면에 있는 광범위한 해양 침수의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 증거이다.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증거는 소금(염수, 염전, 염광)과 해양(해양) 화석으로, 이는 지구 대륙 지역의 광범위한 부분을 덮고 있다. 그림

염수를 포함하는 가장 흥미로운 지역 중 일부는 티베트의 히말라야 고지대와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으로, 두

재앙 유형	개수	발생 비율 %
홍수	84	71.79
대화재/화재폭풍	39	33.33
지형 변화	29	24.79
별의 혼란	15	12.82
하늘 붕괴	15	12.82
장기 암흑	14	11.97
잃어버린 땅과 호수	12	10.26
사이클론 바람	10	8.55
축/회전 변화	9	7.69
끓는 강/호수/바다	8	6.84

Table 1. 이야기 속 재앙적 효과의 발생

지역 모두 평균 해발 4000미터의 고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자는 그림 3에 묘사되어 있다. 티베트의 홍수 이야기는, “티베트가 거의 전부 물에 잠겼다”, 신 가야가 생존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뱅갈을 통해 물을 빼내고, 사람들을 문명화시키기 위해 교사들을 보내기 전까지는, 그들은 원숭이에 불과했다”고 전한다 [64]. 페루의 신화는 산이 형성되며 산 꼭대기 홍수와 동시에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목동과 그의 여섯 자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음식과 양떼를 모아 매우 높은 산 안카스마르카 꼭대기로 가져갔다. 홍수 물이 올라가자 산도 더 높이 솟아서, 그 꼭대기가 결코 잡기지 않았고, 홍수가 물러가자 산은 물과 함께 다시

가라앉았다. 여섯 자녀는 홍수 후 이 지방을 다시 번성시켰다” [64].

지질학 사상의 균일주의 학파는 소금을 비롯한 해양 화석 등을 수백만 년에 걸친 장기적인 과정으로 설명하지만, 인류의 홍수 이야기는 그러한 사고 방식을 의심하도록 이끕니다. 만약 바다가 대륙 위로 범람했다면, 높은 고도의 광활한 지역에서 쉽게 발견되는 소금물과 해양 화석들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확한 결과일 것입니다.

2.1. 추가적인 물리적 이상의 징후

균일주의적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형태의 이상이 존재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가지고 진흙 속에 완벽하게 보존된 순간 동결된 매머드 [23, 30, 66], 북미 전역에 걸쳐 240만 km²에 걸쳐 수평으로 층층이 놓인 방대한 퇴적물 [73], 거대 전류의 물결 경관 [12],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원한 불규칙한 돌들이 산 정상에 놓여 있는 현상 [21, 75] 등은 현대의 균일주의 지질학이 단순히 ‘길고 번거로운 과정’이라는 포괄적 설명으로 무시하는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이상들은 급격한 지구 물리적 힘들로 가장 잘 설명되며, 이 논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 다루어집니다.

또한, 지자기 극의 탈출 및 역전은 고지자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구의 반복적인 현상으로 널리 인정됩니다 [32, 40, 44]. 하지만 현대 과학은 이러한 극 역전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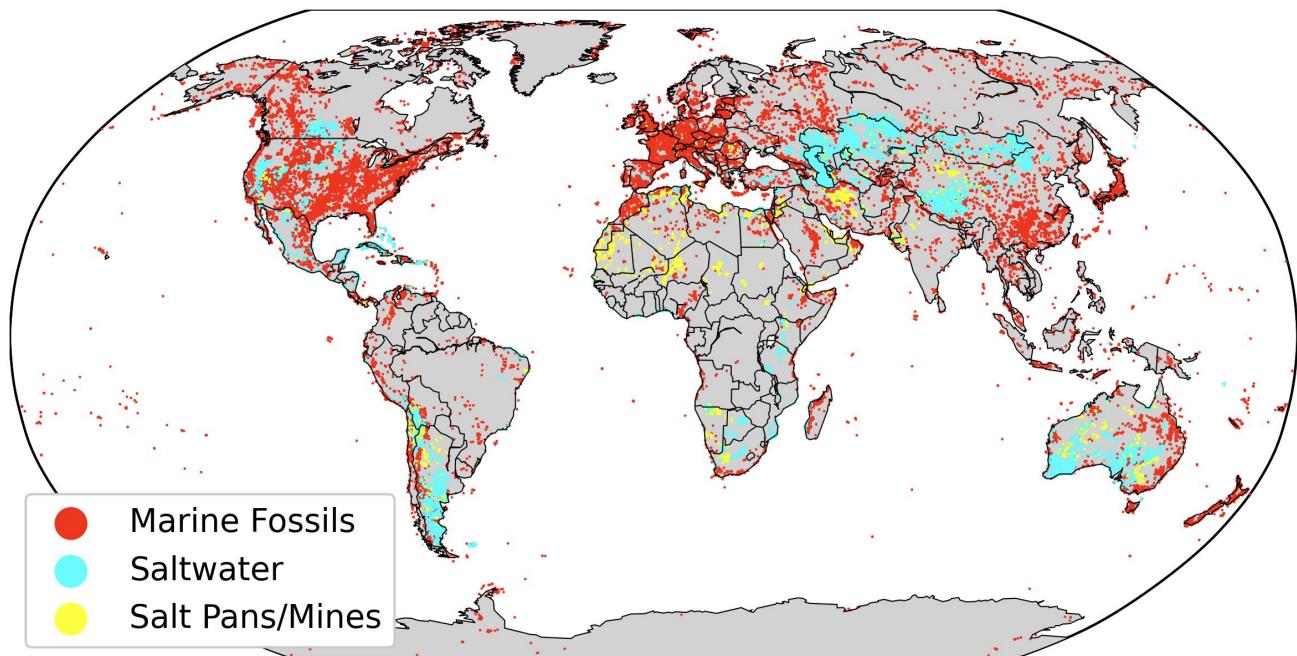


Figure 2. 전 세계의 해양(해양) 화석, 염수, 및 염전/염광의 지도를 보여준다 [34, 78, 6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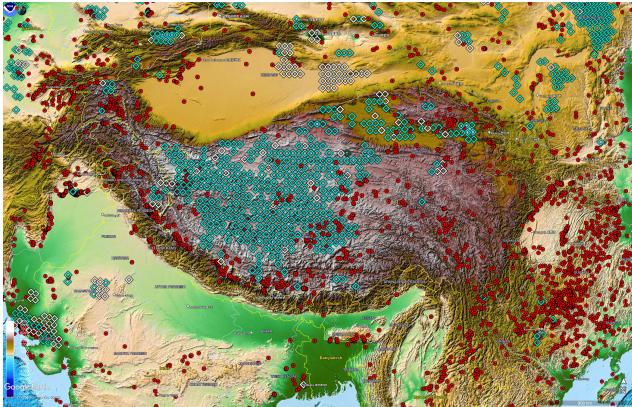


Figure 3. 염수(청록색), 건조된 소금(백색), 해양 화석(적색)을 묘사한 히말라야 지형도 [34, 78, 67, 27].

3. ECDO와 기자의 피라미드들

기자의 카프레와 쿠푸 피라미드는 Ethical Skeptic의 ECDO 논문에서 중요한 초점 중 하나입니다 [57]. 그들은 단지 일시적인 해양 증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구 ECDO 전환의 잠재적인 방향을 나타내며, 우리의 선조들이 이 지구의 대재앙을 측정할 수 있었고 이러한 지식을 대규모로 설계된 석조 구조물에 기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이 두 피라미드는 약 2500 BCE에 파라오 쿠푸와 카프레의 무덤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북부 이집트에 위치하여 각각 대략 (30 N, 31 E)입니다. 그들은 200 미터가 넘는 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약 140 미터의 높이입니다. 쿠푸 피라미드는 평균 2톤 이상의 무게를 가진 대략 230만 개의 석회암 블록을 사용하여 건설되었습니다 [51, 77].

이 피라미드의 기원에 대한 불확실성은 많으며, 이는 Ethical Skeptic이 그의 논문에서 다룹니다. 그는 피라미드를 둘러싼 전통적 서술의 수많은 불일치를 지적하며, 최소한 피라미드의 연령과 역사에 대한 상당한 혼란을 시사합니다:

- 인근 고대 모르타르와 도굴 도구의 탄소 연대 측정은 피라미드가 전통적으로 믿어지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지어졌음을 나타냅니다.
- 쿠푸 피라미드 내부 방에 발견된 소위 채석장 표시는 그 배치, 재료, 보존 상태, 이집트 상형문자 사용 및 발견 시기/성격에서 의심스러우며, 위작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다른 부분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진짜 고대의 황토색 표식과도 다릅니다.
- 인근 스팽크스의 차별적 카르스트 침식은 그것의 건축에 대한 기존 내러티브와 맞지 않습니다.

Ethical Skeptic의 논문에서 조사된 주요 영역 중 하나는 그림 4에 묘사된 카프레 피라미드 외부의 차별적이고 패턴화된 침식입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원래 부드러운

투라 석회암 외장으로 덮여 있었으며, 이 석회암 외장 꼭대기는 약하게 풍화되었지만 좁고, 심하게 카르스트 침식된 층 바로 위에 있으며, 이는 피라미드의 내부 구조 블록에 사용된 더 단단한 모스 7 모카탐 석회암을 노출시킵니다. 그 아래에는 피라미드 몸체가 심하게 카르스트 침식된 모스 4 투라 석회암 층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라미드의 외부 외장에 사용된 부드러운 투라 석회암, 즉 CaCO_3 를 적절한 조건 하에서 물에 녹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Ethical Skeptic은 단단한 모카탐 석회암에서 멈추는 선택적인 무거운 카르스트 침식층, 꼭대기 모서리의 파도 형태 침식, 그리고 높이 올라간 꼭대기의 약한 풍화와 피라미드의 낮은 몸체에서의 심한 카르스트 침식 간의 차이를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의 명확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57].

Ethical Skeptic은 또한 그의 조사에서 쿠푸 피라미드의 내부 설계와 상태 [56]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쿠푸 피라미드에는 여러 개의 방(왕의, 왕비의 및 지하 방)과 다양한 복도와 통로, 그리고 각각 하나씩 왕과 왕비의 방에서 방 사형으로 뻗어 있는 소위 '공기 통로' 2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6, 6]. 이 논문에서 우리는 Ethical Skeptic의 조사中最 중요한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쌍의 '공기 통로'의 방향과 설계로, 지구의 ECDO 전환 방향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인코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로가 특정 방향을 매우 정밀하게 가리키도록 지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두 쌍의 통로는 현재 북쪽과 남쪽을 직접 가리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들은 각각 104도의 내부 각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서는 왕비의 통로 중 하나의 내부에 새겨진 천성의 별 지도입니다. 이 별 지도는 약 9600에서 9200 BCE 사이의 춘분의 세차를 기반으로 천구 북극 방향을 중심으로 합니다 [56]. 이는 통로의 고의적인 방향을 시사하며, 건설 당시 왕과 왕비의 방에서 나온 한 쌍의 통로가 천구 북극을 가리켰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통로 끝은 무엇을 가리키고, 왜 둘 다 104도의 각도로 만들어졌을까요? Ethical Skeptic은 이러한 통로가 104도 ECDO 전환 이후 천구 북극과 맞추기 위해 지어졌다고 제안합니다.

4. 31번째 자오선을 따라 104도 회전에 대한 증거

따라서 Ethical Skeptic은 지구가 31번째 자오선을 따라 주기적인 104도 전환을 경험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쿠푸 피라미드와 그 이중 통로가 위치한 경도입니다. 그럼 6은 예측된 회전을 묘사하며, 동쪽(인도네시아, 121도 E)과 서쪽(남아메리카, 59도 W)의 '축', 즉 31번째 자오선을 따라 전환 후에도 위치가 변하지 않을 두 지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 새로운 상태로 회전한 후, 현재의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 전에 잠시(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그곳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59]. 일부 특히 관련 있는 대재앙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에 의해 전해지는데, 그는 기원전 5세기에 살았습니다 [70]. 그의 책 "이집트의 설명"에서 헤로도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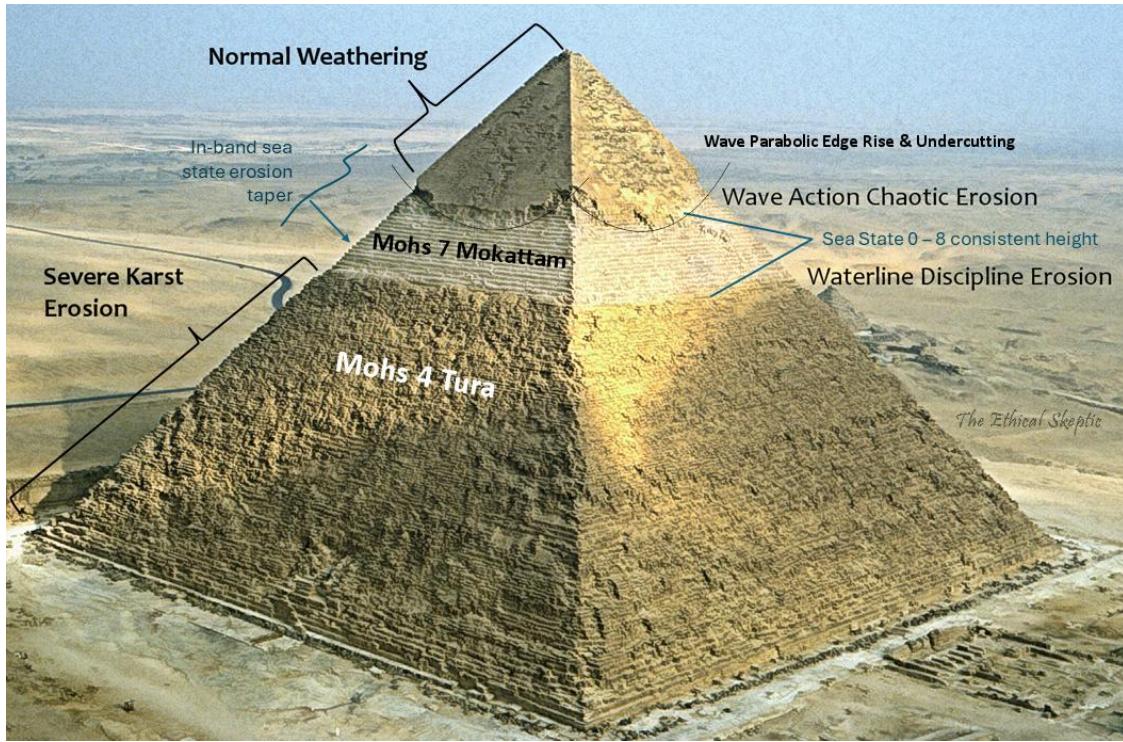


Figure 4. 지속적인 일시적 해수면 상승에 의해 발생한 차별적이고 패턴화된 카르스트 침식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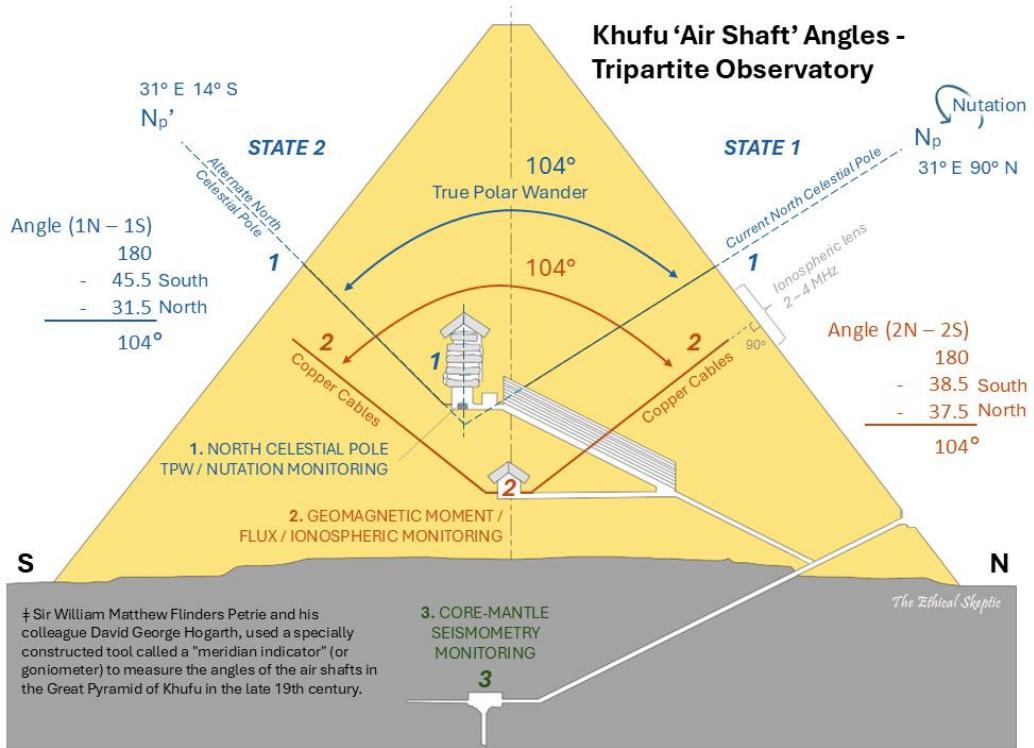


Figure 5. Ethical Skeptic^o ECDO 사건을 위한 삼월적 지구 물리적 모니터링 관측소로 제안한 쿠푸 피라미드의 내부 통로와 방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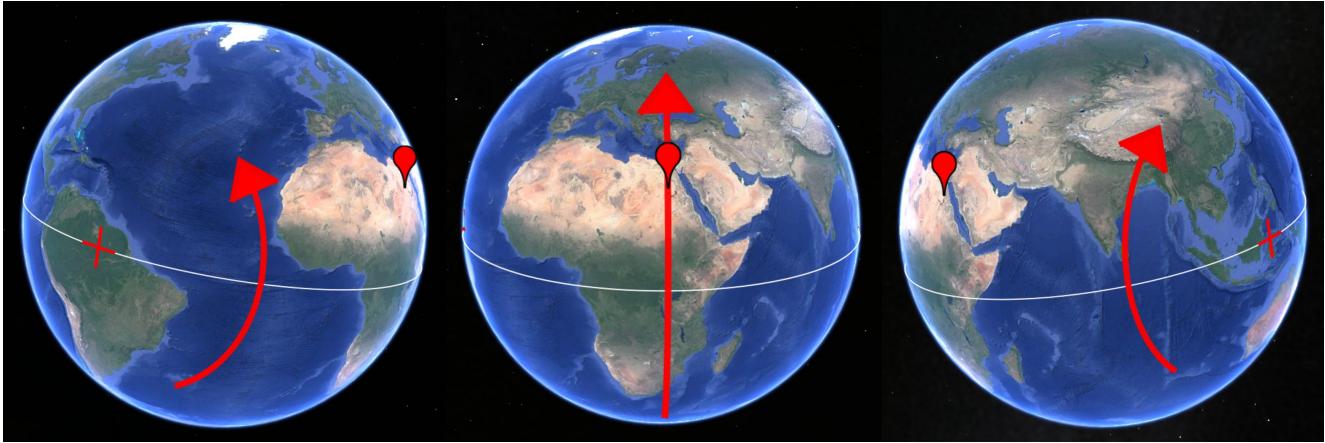


Figure 6. 31번째 E 경도를 따라 104도 북쪽으로 가는 제안된 ECDO 회전에 대한 묘사, 동쪽과 서쪽 축을 표시하는 십자 형상 및 쿠퍼 피라미드를 나타내는 빨간 표시기 포함.

스는 이집트의 사제들이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 왕부터 마지막으로 통치한 헤파이스토스의 사제까지, 인류의 세대가 341세대 있었는데... 인류의 300세대가 만 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백 년이 인류의 세대 세 번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길, 11,340년 동안 인간 형태의 신이 나타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 전후로 이집트에서 일어난 나머지 왕들 중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없었다. 그 시기에 그들은 태양이 떠오르는 익숙한 장소로부터 네 번 이동했으며, 지금 지는 곳에서 떠오른 적이 두 번 있었고, 지금 떠오르는 곳에서 진 적이 두 번 있었다; 그리고 그 동안 이집트에서는 땅에서 나오는 것이든 강에서 오는 것이든 혹은 질병이나 사망과 관련된 것이든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았다.” [22]. 헤파이스토스 사제는 이집트의 왕과 동시에 인물인 신아케립과 동시대에 있었으므로 기원전 7세기 초로 추정됩니다 [22, 43, 29].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태양이 이집트에서 이동했을 때, 그것이 정확히 떠오르는 장소와 지는 장소를 교환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집트가 180도 뒤집혀 유사한 위도에 위치했을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디자인과 다음 소절에서 다루는 데이터를 고려할 때, 이집트가 지구가 새로운 위치로 회전하는 경도(동경 31도)에 놓여 있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태양이 떠오르는 곳과 지는 곳을 특별히 바꾸었다고 언급한 이야기가 있는 지구에서 유일한 장소입니다. 사실, 지구의 회전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는 단 하나의 다른 이야기는 중국의 여와 이야기로, 그것은 “기둥이 무너져 하늘이 북서쪽으로 기울어지고 땅이 동남쪽으로 이동했다”고 말합니다 [74]. 이 회전 방향은 제안된 회전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4.1. 31번째 경도를 따라 104도 회전에 대한 물리적 증거

이 회전 방향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증거는 고지자기, 판구조론, 사막, 생물 다양성, 고대 해류, 빙하 방랑석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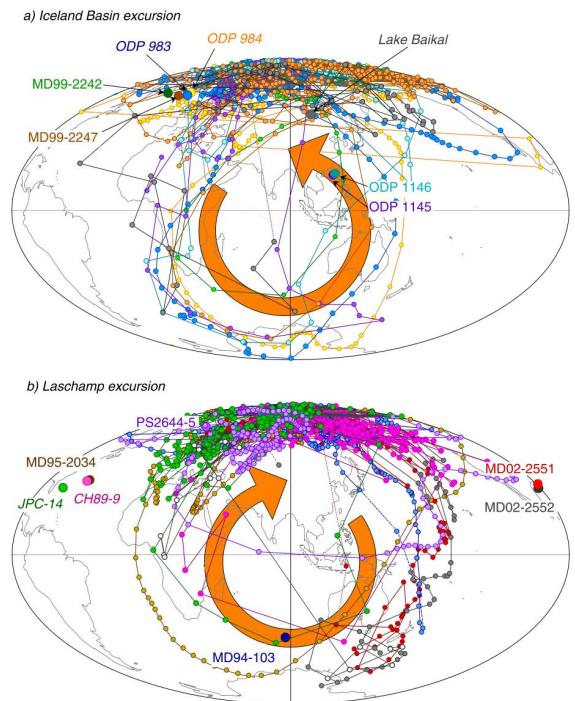


Figure 7. (a) 아이슬란드 분지 편차와 (b) 라샹프 편차의 가상 자기 극 경로 [32]

아이슬란드 분지와 라샹프 편차의 지자기 극 경로를 보존하는 고지자기 데이터 연구 [32]는 그림 7에 나타나 있으며, 극이 동쪽 ECDO 피벗(0 N, 121 E) 주변을 회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데이터는 극 편차 동안 형성된 암석의 특정 종류의 자기 광물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당시에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강도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각의 전단(단층) 평면에 대한 연구(그림 9)에도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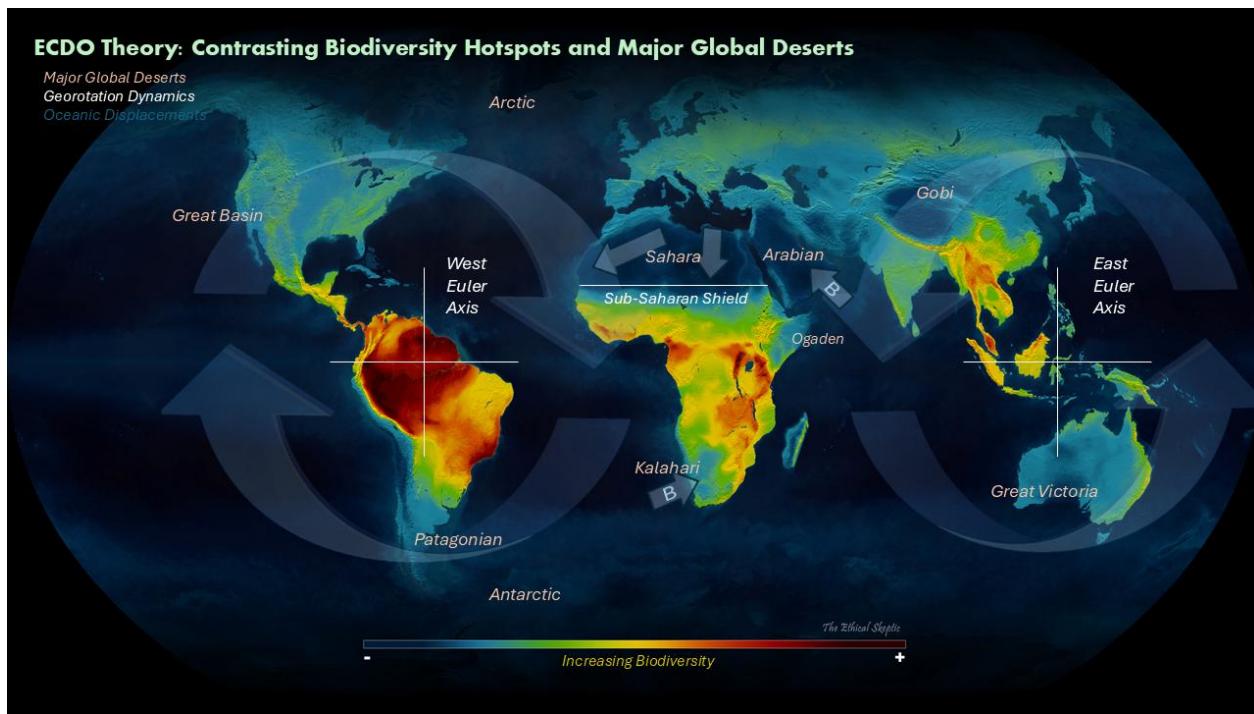


Figure 8. 세계 주요 사막과 교차하는 생물 다양성 핫스팟의 묘사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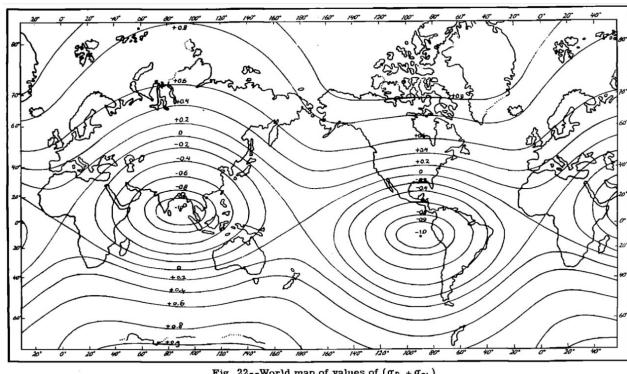


Figure 9. 지각 전단 패턴의 묘사 [42]

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네덜란드의 지구 물리학자인 펠릭스 마인즈는 그의 논문에서 [42] 이 패턴의 가장 가능성 있는 이유가 지구 회전축의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세계 주요 사막과 생물 다양성 핫스팟의 위치 또한 이 패턴과 일치합니다. 사막들은 퇴적물로 심하게 침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존재하며, 생물 다양성 핫스팟은 해양 변위로 심하게 타격받지 않는 지역에 존재합니다 [56]. 이러한 일치는 그림 8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측된 ECDO 회전 경로에 대한 이러한 일치는 또한 미국 서부 사암층에 보존된 퇴적물 고대 해류와 빙하 방랑 석에서도 존재합니다. 방랑석은 빙하에 의해 집어 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암석 유형의 기반암에 퇴적된 바위

입니다. 영국에서 이러한 방랑석은 ECDO 회전과 일치하는 예상 흐름 경로를 따릅니다 [16, 17].

5. ECDO 뒤집힘을 설명하는 인과적 물리학

지구 회전축의 급격한 변화의 원리는 회전 물체의 물리학에 있습니다. 이의 정형적 예는 러시아 우주비행사 블라디미르 잔니베코프가 발견한 잔니베코프 효과 [10]로, 그림 10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의 세 주관성 축 중 하나에 완벽하게 회전하지 않는 물체는 고정된 회전축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주관축 근처에서 회전할 경우, 그것은 갑작스러운 회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구의 급격한 뒤집힘 동안 일어날 것으로 믿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외부 힘이 없을 때, 회전 물리학만이 지구의 회전축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구는 단순하고 균일한 잔니베코프 효과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 회전축의 점진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기로는, 지구는 주기적이고 갑작스러운 물리적 구조의 일탈을 경험하고, 이것은 "외부 회전"(지각/맨틀)과 "내부 회전체"(핵)의 분리를 초래합니다. 외부 입력이 없을 때, 각운동량 보존 법칙은 지구가 갑작스럽게 회전축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러므로 외부와 내부 회전체의 분리는 지구에 대한 외부 충격이 아니라면, 갑작스럽고 급작스러운 뒤집힘을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중 하나입니다.

지구 내부의 내부 일탈을 유도하는 특정 과정은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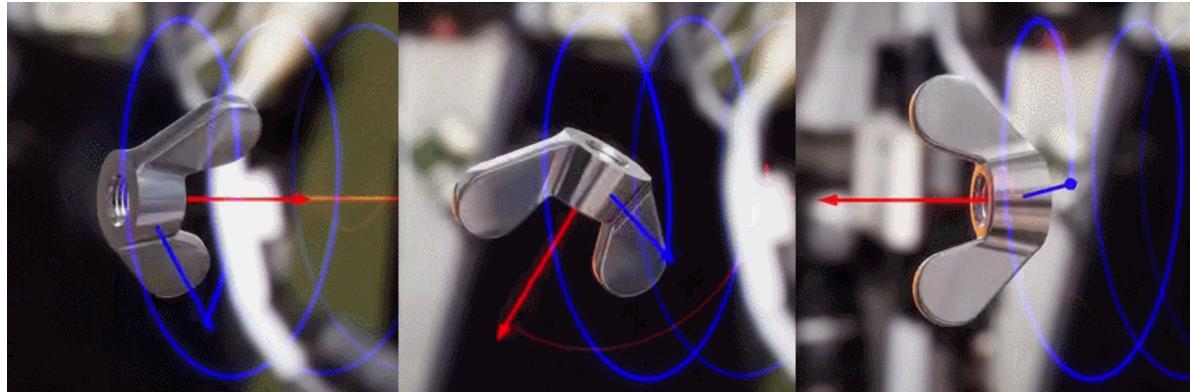


Figure 10. 잔니베코프 효과의 묘사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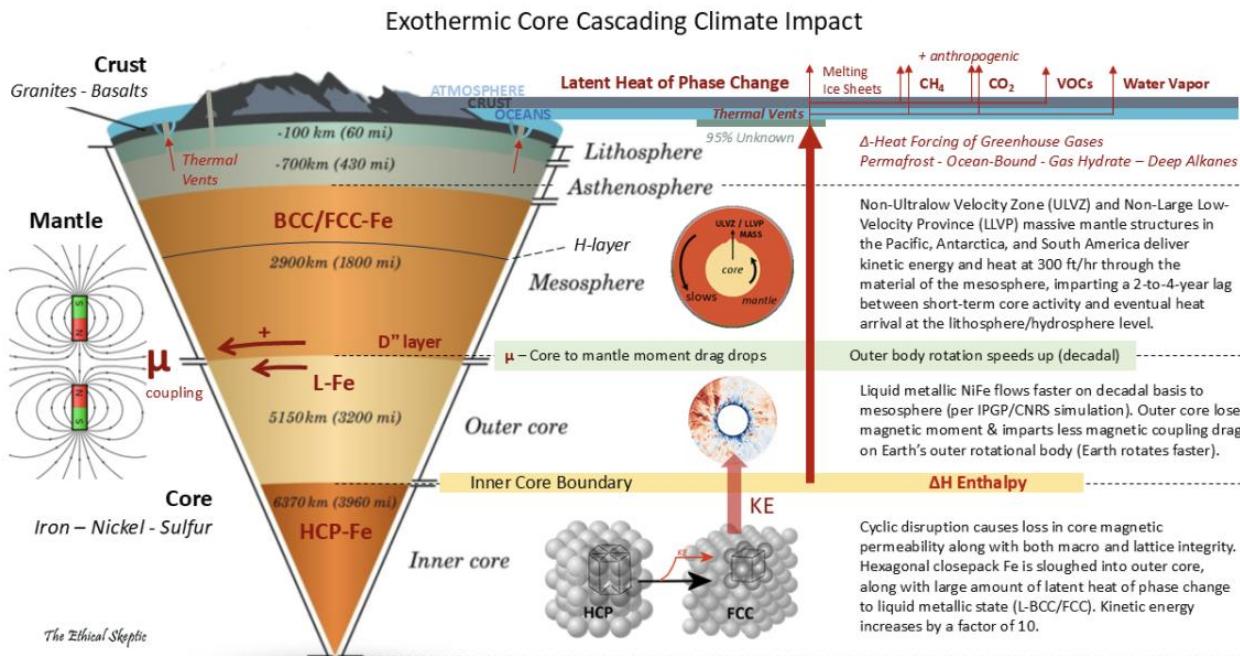


Figure 11. ECDO 뒤집힘을 초래하는 내부 지구 과정의 묘사 [65]

의 핵을 구성하는 철의 구조 상태 변화라고 믿어집니다(그림 11). 내핵은 밀집 육방정계 철(F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5]. 이 hcp-Fe가 액체 금속 상태로 변환될 때, 그것은 운동 에너지를 방출하며 외핵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 상 변화는 핵의 자기적 투과성을 감소시켜 지자기를 약화시키고, 열을 방출하여 맨틀에 LLVP (대규모 저속 전단 지역) 구조를 생성하며(그림 12) [41], 심해를 통해 지구 표면을 가열합니다. 이 두 가지 경향은 최근 수세기에 걸쳐 잘 문서화되어 있으며, 이 논문 후반부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지구 내부에서의 과정이 반대 방향으로 발생할 때 또한 뒤집힘이 발생한 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지

구의 현재 회전 상태로의 전환을 유도한다고 믿어집니다.

6. 임박한 지구 뒤집힘에 대한 증거

우리는 또 다른 지구 뒤집힘의 문턱에 서 있다는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 천년 동안 대재앙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역사적 기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빈도와 대략적으로 일치합니다. 임박한 뒤집힘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는 최근 지자기의 데이터를 통해 오고 있으며, 이는 지구의 지자기장이 약 2000년 동안 약화되어 왔음을 나타냅니다. 이 약화는 가속화되었으며 최근 몇십 년 동안 경고할 만한 속도에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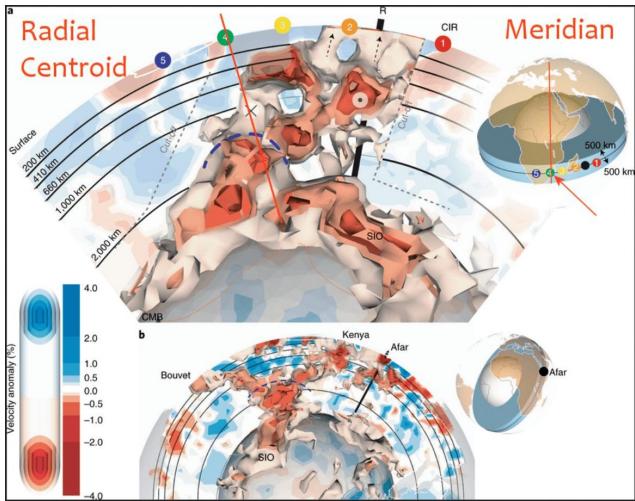


Figure 12. 남아프리카 아래의 LLVP 세부 묘사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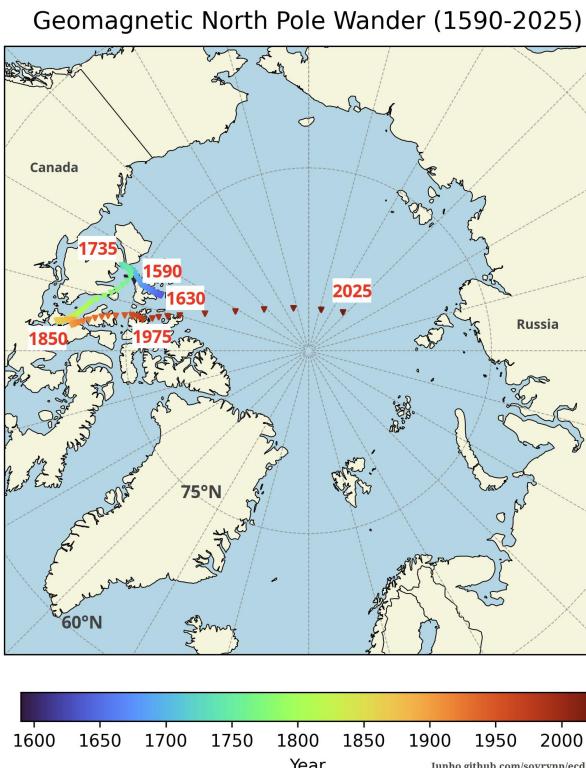


Figure 13. 1590년부터 2025년까지 지자기 북극의 위치, 5년 단위로 묘사됨 [46].

달했습니다.

그림 15에 묘사된 것은 1590년과 2025년의 지구의 지자기장입니다 [24, 48].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장이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약화되는 지자기장의 또 다른 지표는 지자기 북극의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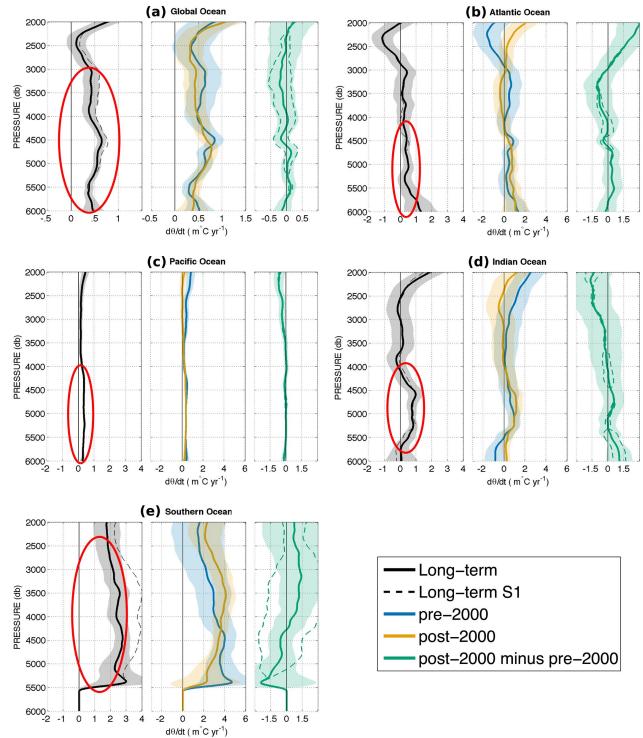


Figure 14.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00미터 이상의 깊이에서 심해 온난화 비율, 빨간색으로 표시됨 [13].

치입니다 (그림 13). 역사적으로 지자기 북극은 캐나다 북극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세기 동안 천천히 이동하고 있으며, 몇십 년 전부터는 상당히 가속화되었습니다. 현재는 매년 55킬로미터의 속도로 러시아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47].

지구의 자기장은 내부 다이너모, 즉 지구 외핵에서 회전으로 인해 움직이는 마그마 흐름의 원형 기둥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8]. 약화되는 지자기장은 지구 깊숙한 곳에서의 혼란의 증상입니다. ECDO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혼란은 열을 방출하고 결국 맨틀과 핵의 분리를 일으켜 지구 뒤집음을 초래합니다 [58].

내부 지구 과정의 발열성 존재를 입증하는 상당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대륙 및 해양 표면 온도의 상승 [45, 9], 지구의 열출과 동기화 움직이는 대기 중 CO₂ 수치 상승 [65, 49], 전 세계 해빙 면적 감소 [4]에서 문서화되었습니다. 데이터는 CO₂ 수치 및 온도 상승이 “인위적” 기후 변화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발열성 핵의 하류 효과임을 시사합니다 [65].

가장 중요하게는, 심해 (>2000 미터)의 온난화 비율에 대한 연구는 심해가 온난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온난화 비율이 심해층 (4000 - 6000 미터)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심해 온난화는 4000 미터 아래에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3, 65], 이는 대기에서부터 해양이 가열되고 있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최근 기후 및 지자기 변동이 지구 내부의 과정에 의해 촉발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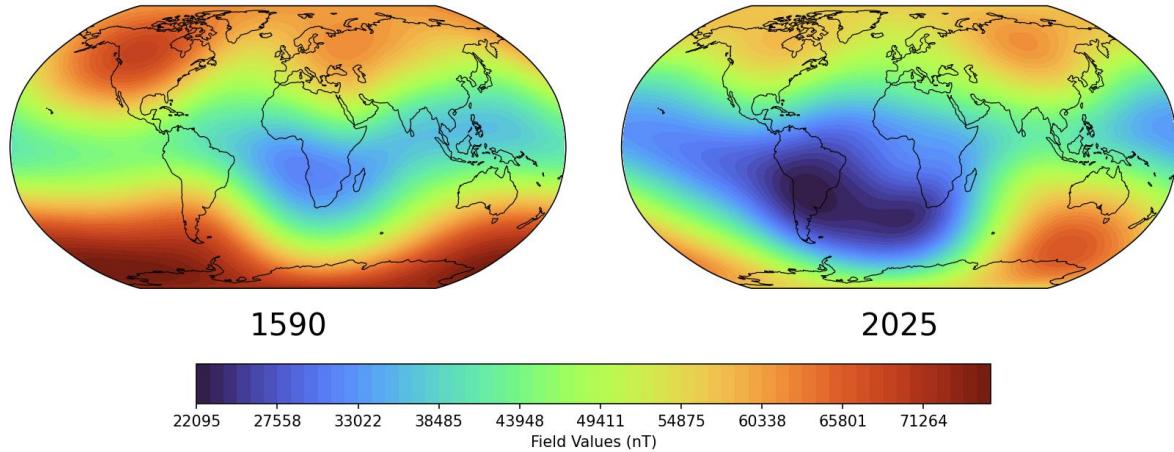


Figure 15. 1590년부터 2025년까지 약화된 지자기장의 묘사. gufm1 및 IGRF-14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함 [24, 48].

14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심해 온난화 비율을 묘사합니다 [13].

7. 임박한 지구 뒤집힘 모델링

지구의 다음 뒤집힘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입니다. 현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은 지구의 지자기장인 남대서양 이상 지역 (SAA)에 있습니다. 남대서양 위의 이 지역은 가장 약한 지자기장 강도를 가지며, 이는 32,000 나노테슬라 이하의 장 강도를 가진 영역으로 정의됩니다 [11], 이는 1590년 당시 가장 약한 장 값이었습니다. 남대서양 이상 지역의 표면적은 1590년에 지구 표면의 1

지구가 언제 뒤집힐지를 추정하기 위해, 나는 SAA 표면 범위 데이터를 복잡한 시스템이 급격한 변화에 이르는 임계 전환에 접근하는 것을 모델링하는 면 법칙 전환점 방정식에 맞춥니다. 계산 결과 전환점 예측 날짜는 2059년 3월 13일로 나왔습니다 (그림 16). 이 예측은 전환에 가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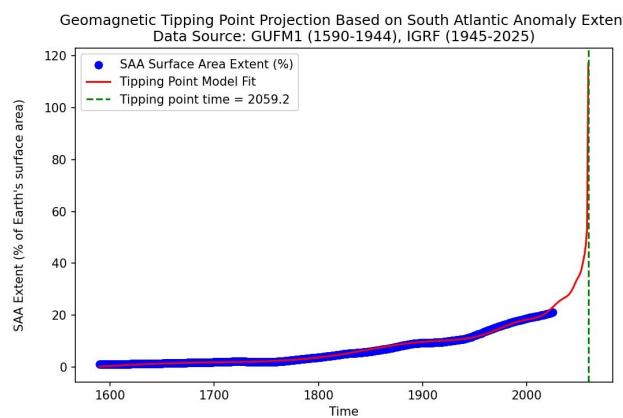


Figure 16. 남대서양 이상 현상을 기반으로 한 전환점 계산은 2059년 3월 13일을 가리킵니다 [24, 48].

워질수록 점점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60].

다른 지표로는 회전축 방향, 날씨 이상, 지진 및 화산 데이터 등이 있으며 다음 지구 뒤집힘이 언제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더 나은 예측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8. ECDO 역사적 타임라인

과거 ECDO 사건의 정확한 타임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훌로세 동안 최소 2번의 ECDO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 사제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첫 번째 왕부터 마지막으로 통치했던 헤파이스토스 사제까지, 남성의 세대가 341번 바뀌었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해가 네 번씩 뜨는 곳에서 지고, 지금 있는 곳에서 해가 두 번 떠올랐으며, 지금의 뜨는 곳에서 두 번 졌다” [22].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플라톤은 ”그 이후로 많은 홍수가 있었고, 산에 살아남은 후세는 글쓰기를 몰랐다.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생존 수단을 얻는데 전념했다” [53]라고 하여 9700 BCE경 소멸된 젊은 드라이아스 이후 두 번 이상 뒤집힘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논문과 내 연구에서 다른 물리적 증거 [28]는 플라톤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가장 최근의 ECDO 뒤집힘 후보 날짜는 기원전 2300년에서 1600년 사이로, 많은 대재앙적 홍수 기록 (Gun-Yu [69, 1, 81], Ogyges [80, 19], 페루 [39, 54], 출애굽 [25]), 문명 파괴 및 버림 (모헨조다로 [26], 미노아 크레타[15, 18]) 및 물리적 이상현상 (본드 이벤트 [5], 4.2킬로년 이벤트 [62])이 그 시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주요한 대재앙적 사건을 시사하는 충분한 증거의 수렴은 없습니다.

9. 결론

작전 NANOOK는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북극과 북부 소련 해안을 탐색하기 위한 냉전 시기의 정찰 노력이었다 [79]. 그들의 조사 중에, 자극이 이전 탐험의 발견에 근거하여 예상되었던 위치보다 북쪽으로 125에서 200마일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정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자기와 지리적인 극이 일치할 때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한 질문이 생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Dr. Paul A. Siple의 프로젝트 통제 하에, Rand Corporation은 지구 모델이 동심 구형으로 구성된 실험실 연구를 수행하도록 계약되었다 - 하나는 전자기적으로 충전된 지구의 용융 철코어를 나타내며, 그 축은 “자기” 극을 정의하고; 또 다른 하나는 “지리적” 극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지구의 지각을 나타낸다. 반복된 실험을 통해 “자기” 극이 “지리적” 극에 접근함에 따라 “자기” 극이 “지리적” 극으로 끌려가 중앙력으로 일치하여 급가속할 것이며, 그 후 극이 일치하는 대신 “자기” 극이 “지리적” 극 주위를 급격히 “튀어오르며”, 원심력에 의해 적도를 향해 회전하며, 두 축이 약 89도의 각도로 이탈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확립되었다. 극 “튀어오름” 이후에는, 두 축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점차 재수렴하기 시작할 것” [72, 50].

이어서, “1948년 초 펜타곤에서 화이트 소령이 참석한 과학 회의 중 하나에서, 과학자들은 대중에게 임박한 극 튀어오름 현상에 대해 경고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과학자들 중 누구도 대중에게 이 정보를 숨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를 합의하지도 못했다. 이 현상에 대한 지식은 그 자체로 사회의 도덕적 결속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1950년 대 초에, 튀어오름 현상에 대한 정보가 신문 칼럼과 잡지 기사로 공개되었을 때 아무 반응도 없었고, 명백히 놀라거나 의심 많은 대중에게서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했으며, 이러한 두려움은 근거 없었다.” [72, 50].

왜 우리는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가? 지구가 과거에 뒤집혔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논문은, 논문의 제2부와 함께, 고립된 증거 영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밀도 있게 요약하여 홍수 이야기, 대륙을 덮는 소금 및 해양 화석, 고대 지하 대피소, 동물 유해 및 파괴적인 지질학적 풍경 등을 다루고 있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대 역사는 몇 천 년 전까지밖에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어쩌면 가끔 지구가 뒤집히고, 대륙이 정선되고, 우리는 대석기 시대 즉,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 고대 역사의 기록을 몇 가지의 파괴적인 이야기로 줄이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일 수 있다.

마무리하면서, 나는 소론이라는 아테네 정치가와 이집트 사제들 간의 회화를 플라톤이 저술한 티마이오스에 기록된 다음의 이야기를 남기겠다 [52]: “그리고 한 번, [소론]이 그들에게 고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고자, 그는 우리 전통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포로네우스와 나오베에 관한 전설, 그리고 홍수 후의 테우칼리온과 피라의 생존 및 그 후손들의 계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언급된 사건들이 차지했던 시간의 기간을 계산해 보려고 시도했다. 그 때 매우 나이 든 사제 중 한 명이 말했다, “오 소론, 소론, 당신들 그리스인은 항상 아이들이다: 노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물었다, “당신은 무슨 뜻인가?” 그러자 사제가 답했다, “당신들은 영혼이 깊습니다, 모두가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오래되고 전통에서 물려받은 신념도 없고, 오래된

과학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인류에 많은 다양한 파멸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불과 물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다른 무수한 방법에 의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 나라와 우리 나라에서 모두 이야기되는, 하늘의 몸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이동하며 자리바꿈 하고, 오래된 것들을 파괴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부는 전설의 형태를 가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하는 격렬한 불에 의한 파괴입니다. 이런 시기에, 산과 높은 건조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강이나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파괴되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나일 강은 다른 방법들로도 구원자이지만 이런 시기에 우리를 이 재앙에서 구원해 줍니다. 반면, 신들이 물의 홍수로 지구를 정화할 때, 산에 있는 모든 목동과 양치기들은 구원을 받지만, 당신 나라의 도시 사람들은 강의 흐름으로 바다로 쓸려갑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그 시기에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우리 밭에 쏟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자연스럽게 아래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존된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온도나 추위가 그것을 방지하지 않는 모든 곳에 항상 어떤 인류 종족 존재가 있습니다. 얼마는 더 많고, 얼마는 더 적습니다. 그리고 고귀하거나 위대하거나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우리 나라든 당신 나라든 어떤 다른 곳에서도든, 우리는 보고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모든 그러한 사건은 오랜 세월 전부터 여기 우리의 성전에서 기록되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 나라 사람들과 다른 이들은 매번 새로운 문자를 배우고, 문명화된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예술을 습득하지만, 다시 전염병처럼, 하늘에서의 홍수가 당신 나라의 사람들에게 쏟아지면, 여러분 중 누구도 문자 되지 않은 자 외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다시 젊어지게 되고, 이 땅과 당신 자신의 땅에서 이미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확실히 당신이 방금 언급한, 소론, 당신 나라의 계보는 어린아이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당신은 단 하나의 홍수만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많은 홍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 당신은 인류 중 가장 고귀하고 완벽한 인종이 당신들이 지금 거주하는 땅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당신 자신은 물론이고 현재 존재하는 당신의 도시 전체가 태어났지만,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세대에 걸쳐 생존자들이 글쓰기의 능력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한때, 소론, 가장 큰 물에 의한 파멸 전에는, 지금의 아테네 국가가 전쟁에서 가장 용감했고, 또한 다른 모든 면에서도 매우 잘 조직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가 하늘 아래의 모든 국가 중 가장 훌륭한 예술 작품과 고귀한 정치를 소유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같은 사제들은 물론 솔론에게 아틀란티스의 고대 문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입구에 있는 것은 분명히 좁은 입구를 가진 피난처입니다. 그러나 저쪽은 진정한 대양이며,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땅은 가장 완전하고 진실한 의미에서 대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틀란티스 섬에는 위대한 권력을 가진 왕들의 연합이 존재하여 모든 섬과 여러 다른 섬과 대륙의 일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해협 내의 땅

에서 리비아를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유럽을 터레니아에 이르기까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모두 모여서 당신의 나라와 우리 나라, 그리고 해협 내의 모든 영토를 한 번의 기습으로 노예로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솔론, 당신의 국가의 인물이 전 세계의 시야에서 용기와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것은 용맹과 모든 전쟁 기술에서 모든 것보다 탁월하게 두드러졌으며, 그리스인의 일부로서 지도자로서 행동하고, 다른 모든 이들에 의해 벼려졌을 때 스스로 서고,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겪은 후에 침입자를 물리치고 전리품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하고, 헤라클레스 경계 내에 거주하는 우리 모두를 아낌없이 해방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상한 지진과 홍수가 발생했으며, 당신의 전사들의 전체가 땅에 삼켜지고 아틀란티스 섬도 똑같이 바다에 삼켜져 사라지는 고통스러운 하루와 밤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10. 감사의 글

윤리적 회의론자, ECDO 논문의 원저자에게 통찰력 있고 혁신적인 논문을 완성하고 세상과 공유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의 3부작 논문 [58]은 발열 핵심 맨틀 이탈 잔니베코프 이론 (ECDO) 이론의 주초적인 작업으로 남아 있으며, 여기에서 간단히 다른 것보다 이 주제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표 1에서 재해 컴파일 데이터 처리를 한 Ankit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서 있는 거인의 어깨 위에 감사드립니다; 이 작업을 가능하게 했고 인류에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 연구와 조사를 해온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11. 추가 이미지



Figure 17. 카프레 피라미드에 있는 언더컷, 포물선 파 침식에 대한 자세한 관찰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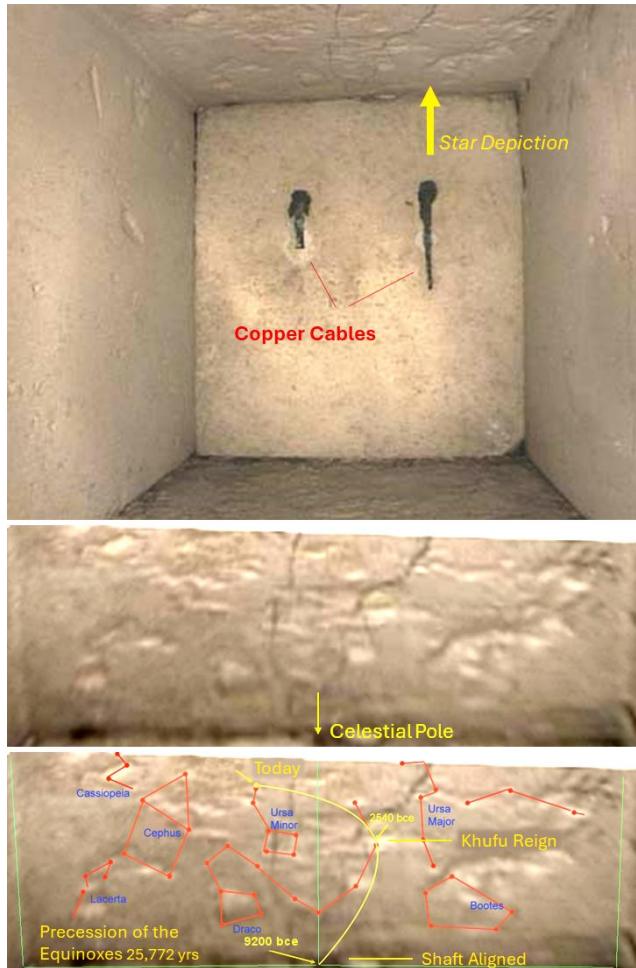


Figure 18. 쿠푸 피라미드의 한 샤프트에 새겨진 별 지도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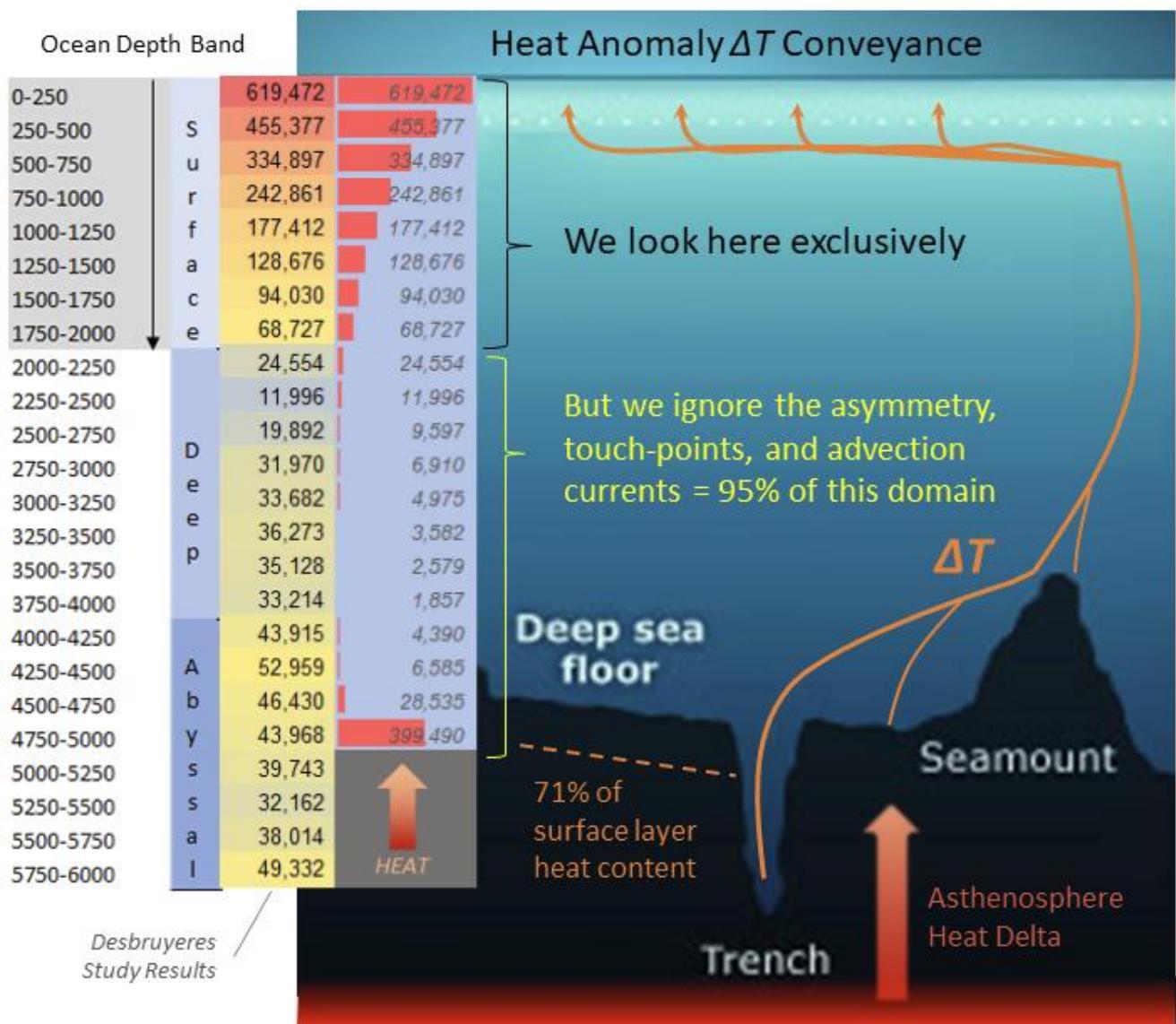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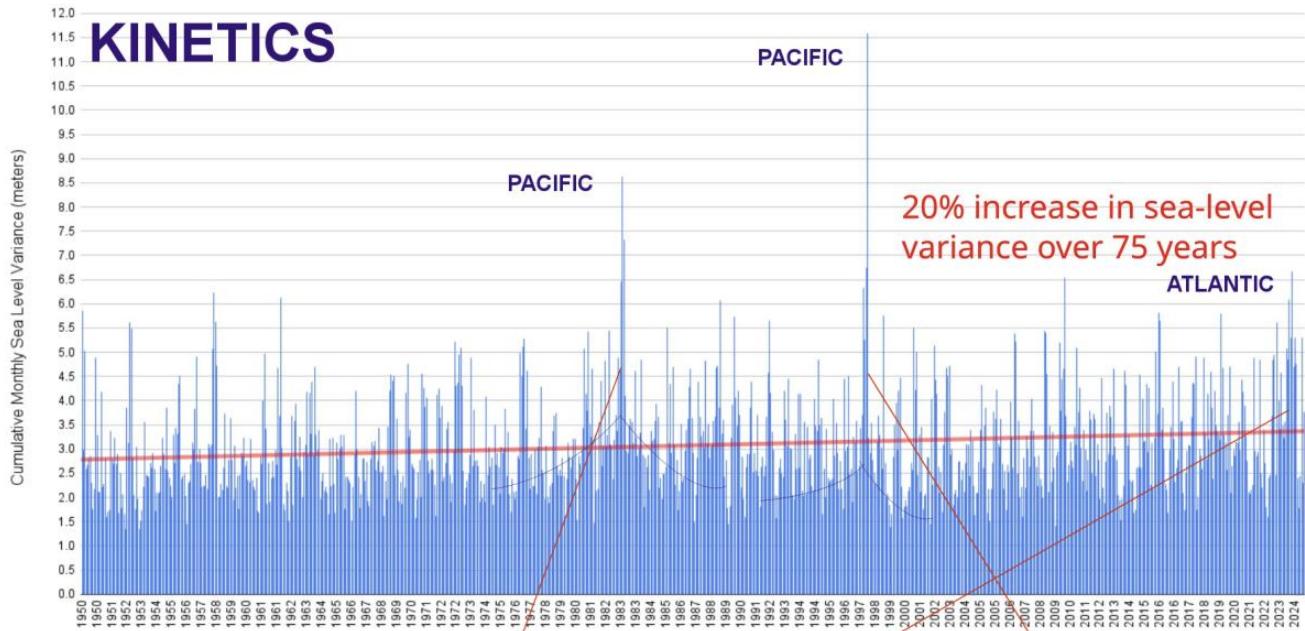


Figure 19. 정상적인 대기 해양 가열 곡선과 비교한 심해 및 심해 대양 가열 이상 징후의 시각화. 전체 가열 이상 현상은 NOAA에서 가져온 것이며 [36], 심해 및 심해 가열 분포는 Desbruyeres 연구 [13]에서 가져왔고, 데이터 처리 및 시각화는 윤리적 회의론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65].

Per-Station Interannual Variation of Monthly Mean Sea Level (Factored Out: Linear Sea Level Increase and Seasonal Cycle), Cumulative Across 63 US Stations (Data: NOAA)



Daily Sea Surface Temperature, World (60°S–60°N, 0–360°E)

Dataset: NOAA OISST V2.1 | Image Credit: ClimateReanalyzer.org, Climate Change Institute, University of Maine

The Ethical Skep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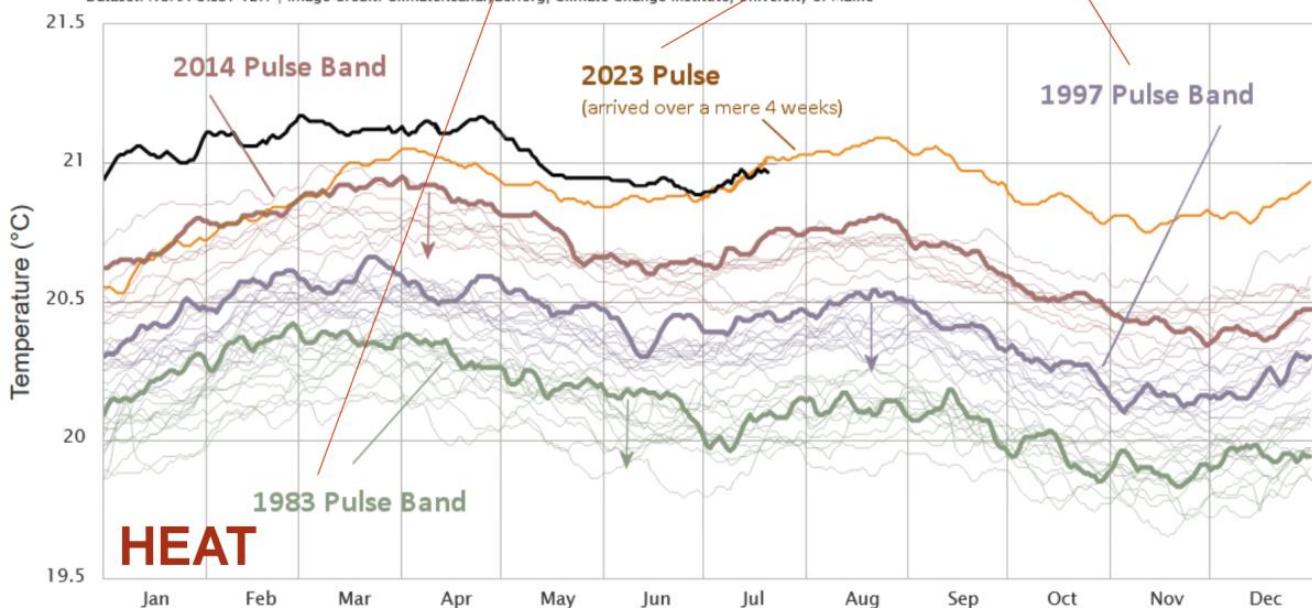


Figure 20. 해수면은 75년에 걸쳐 63개 지점에서 변동성이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해류 속도의 증가를 나타냅니다. 해수면 변동성의 급증은 해양 열 펄스와 동시에 발생하여 이들이 지구의 심해 아래로부터의 가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28,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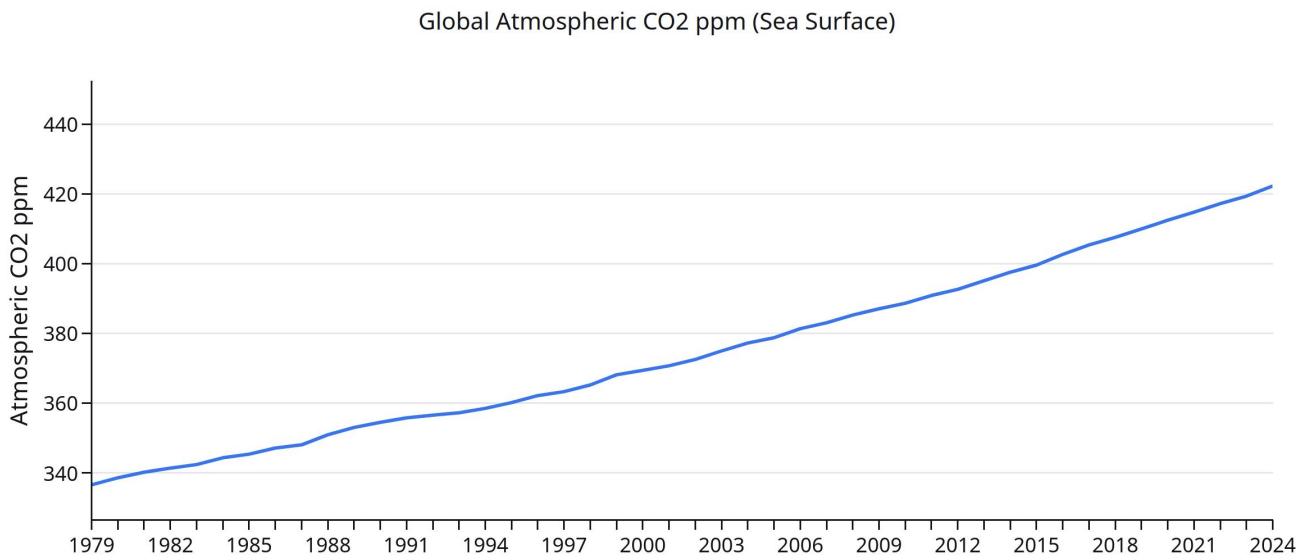


Figure 21. 대기 중 CO₂ 농도는 지난 4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는 해양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NOAA [33, 65].



Figure 22. 지구 해빙 범위는 지난 45년 동안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처: ADS [3].

References

- [1] Great flood (china). [https://en.wikipedia.org/wiki/Great_Flood_\(China\)](https://en.wikipedia.org/wiki/Great_Flood_(China)), 2025. Accessed: 2025-02-10.
- [2] D. Allan and J. Delair. *Cataclysm! : compelling evidence of a cosmic catastrophe in 9500 B.C.* Santa Fe, N.M. : Bear Co., 1997.
- [3] A. D. archive System (ADS). Visual information of the sea ice for the polar operational network (vishop), 2025. Accessed: 2025-02-13.
- [4] Arctic Data archive System (ADS). Visual information of the sea ice for the polar operational network (vishop), 2025. Accessed: 2025-02-10.
- [5] Y. A. Brahim, J. A. Wassenburg, L. Sha, F. W. Cruz, M. Deininger, A. Sifeddine, L. Bouchaou, C. Spötl, R. L. Edwards, and H. Cheng. North atlantic ice-rafting, ocean and atmospheric circulation during the holocene: Insights from western mediterranean speleothems.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46(12):6616–6623, June 2019. Citations: 53 as of 2025-02-10.
- [6] D. A. Calvert. Pyramid of khufu. <https://smarthistory.org/pyramid-of-khufu/>.
- [7] A. Chand. Great flood stories: Inter-religion similar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istory*, 04 2023.
- [8] U. R. Christensen. Geodynamo models: Tools for understanding properties of earth’s magnetic field. *Physics of the Earth and Planetary Interiors*, 187(3–4):157–169, August 2011.
- [9] Climate Change Institute, University of Maine. Daily sea surface temperature, 2024. Accessed: 2025-02-10.
- [10] L. V. Damme, P. Mardesic, and D. Sugny. The tennis racket effect in a three-dimensional rigid body. *arXiv preprint*, June 2016.
- [11] A. De Santis and E. Qamili. Geosystemics: A systemic view of the earth’s magnetic field and the possibilities for an imminent geomagnetic transition, 08 2014.
- [12] L. DeGrey-Ellis and P. Link. Palouse and glacial lake missoula. <https://www.isu.edu/digitalgeologyidaho/palouse-lake-missoula/>.
- [13] D. G. Desbruyères, S. G. Purkey, E. L. McDonagh, G. C. Johnson, and B. A. King. Deep and abyssal ocean warming from 35 years of repeat hydrography.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43(19):10356–10365, September 2016. Citations: 101 as of 2025-02-10.
- [14] J. Din, H. Su, and L. Jing. The role of the three sovereigns and five emperors in shaping chinese civilization. pages 10–12, 01 2024.
- [15] W. S. Downey and D. H. Tarling. Archaeomagnetic dating of santorini volcanic eruptions and fired destruction levels of late minoan civilization. *Nature*, 309:519–523, 1984.
- [16] A. Emery. Glacial erratics, 2023. Accessed: 2025-02-08.
- [17] A. Emery. Unlocking ice-flow pathways using glacial erratics, 2023. Accessed: 2025-02-08.
- [18] Encyclopædia Britannica. Sir arthur evans. *Encyclopædia Britannica*, 2025. Accessed: 2025-02-09.
- [19] S. J. G. Frazer. *Folk-lore in the Old Testament: Studies in Comparative Religion, Legend, and Law*, volume 3. Macmillan and Co., Limited, London, 1919. Digitized b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ies. Call number: SRLF:LAGE-204854.
- [20] A. George. *The Epic of Gilgamesh*, pages 7–16. 12 2018.
- [21] M. Górska-Zabielska, K. Witkowska, M. Pisarska, et al. The selected erratic boulders in the Świętokrzyskie province (central poland) and their potential to promote geotourism. *Geoheritage*, 12(30), 2020.
- [22] Herodotus. *An Account of Egypt*. Project Gutenberg, 2006. EBook #2131, Release Date: February 25, 2006, Last Updated: January 25, 2013.
- [23] J. Holland. Mystery of the mammoth and the buttercups, 1976. <https://www.gi.alaska.edu/alaska-science-forum/mystery-mammoth-and-buttercups>.
- [24] A. Jackson, A. R. T. Jonkers, and M. R. Walker. Four centuries of geomagnetic secular variation from historical record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A: Mathematical, Physical and Engineering Sciences*, 358(1768):957–990, March 2000.
- [25] F. Josephus. *Antiquities of the Jews*. Project Gutenberg, project gutenberg ebook no. 2848 edition, 2001. Public domain in the USA. Last updated: January 30, 2024. Wikipedia page: https://en.wikipedia.org/wiki/Antiquities_of_the_Jews.
- [26] Jun. Historical review of mohenjo-daro and harappan civilization in pakistan. *Pacific International Journal*, 5:31–42, 06 2022.
- [27] Junho. Ecdo kmls. <https://github.com/sovrynn/ecdo/tree/master/5-TOOLS-DEV/dev/0-completed-kmls>. Accessed: 2025-02-09.
- [28] Junho. Ecdo github research repository, 2024. <https://github.com/sovrynn/ecdo>.
- [29] Junho. Egypt cataclysm chronology, 2025. <https://github.com/sovrynn/ecdo/tree/master/1-EVIDENCE/cataclysm-chronology/middle-east/egypt>.
- [30] P. Kolosimo. Timeless earth, 1968. <https://archive.org/details/timelessearth201908>.
- [31] D. Koutsoyiannis, N. Mamassis, A. Efstratiadis, N. Zarkadoulas, and Y. Markonis. *Floods in Greece*, page 238–256. 08 2012.
- [32] C. Laj, C. Kissel, and A. P. Roberts. Geomagnetic field behavior during the iceland basin and laschamp geomagnetic excursions: A simple transitional field geometry? *Geochemistry, Geophysics, Geosystems*, 7(3), March 2006.
- [33] X. Lan, P. Tans, and K. W. Thoning. Trends in globally-averaged co₂ determined from noaa global monitoring laboratory measurements. https://gml.noaa.gov/ccgg/trends/gl_data.html, 2025. Version 2025-02.
- [34] B. Lehner, M. Anand, E. Fluet-Chouinard, F. Tan, F. Aires, G. Allen, P. Bousquet, J. Canadell, N. Davidson, M. Finlayson, T. Gumbrecht, L. Hilarides, G. Hugelius, R. Jackson, M. Korver, P. McIntyre, S. Nagy, D. Olefeldt, T. Pavelsky, and M. Thieme. Mapping the world’s inland surface waters: an update to the global lakes and wetlands database (glwd v2), 07 2024.
- [35] Y. Li, L. Vočadlo, and J. P. Brodholt. The elastic properties of hcp-Fe alloys under the conditions of the earth’s inner core. *Earth and Planetary Science Letters*, 493:118–127, 2018.

- [36] R. Lindsey and L. Dahlman. Climate change: Ocean heat content, 2023. Accessed: 2025-02-13.
- [37] H. Liu. The culture hero in china: Yu the great. *Global Journal of Archaeology Anthropology*, 3, 05 2018.
- [38] N. Maestri. Chalchiuhlicue - aztec goddess of lakes, streams, and oceans, 2023. thoughtco.com/chalchiuhlicue-goddess-170327.
- [39] D. J. McAdam. The scheme of the peruvian savants. <https://www.djmcadam.com/scheme-peruvian.html>. Accessed: 2025-02-10.
- [40] M. W. McElhinny. *Paleomagnetism: Continents and Oceans*. Academic Press, San Diego, 2000.
- [41] A. McNamara. A review of large low shear velocity provinces and ultra low velocity zones. *Tectonophysics*, 760, 04 2018.
- [42] F. A. V. Meinesz. Shear patterns of the earth's crust. *Transactions, American Geophysical Union*, 28(1), February 1947.
- [43] A. Millard. Sennacherib's campaign to judah. new studies. (studies in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ancient near east xviii). by william r. gallagher. pp. xvii, 313, 9 figs. leiden, brill, 1999.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Ireland*, 11:55 – 57, 04 2001.
- [44] N. Mörner. Annual and inter-annual magnetic variations in varved clay. *Geologie en Mijnbouw*, 57:229–241, 1978.
- [45] NASA 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Giss surface temperature analysis (v4): Analysis graphs and plots, 2025. Accessed: 2025-02-10.
- [46]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NCEI). Wandering of the geomagnetic poles, 2022. Accessed: 2025-02-13.
- [47]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NCEI). Wandering of the geomagnetic poles, 2022. Accessed: 2025-02-10.
- [48]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NCEI). International geomagnetic reference field (igrf), 2024. Accessed: 2025-02-10.
- [49]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Global Monitoring Laboratory. Trends in atmospheric carbon dioxide, 2025. Accessed: 2025-02-10.
- [50] Nobulart. The flip of the earth, 2022. Accessed: 2025-02-10.
- [51] T. E. of Encyclopedia Britannica. Pyramids of giza, 2025. <https://www.britannica.com/topic/Pyramids-of-Giza>.
- [52] Plato. *Timaeus*. Harvard University Press; William Heinemann Ltd., Cambridge, MA; London, 1929. Public domain text digitized by the Perseus Project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3.0 United States License. CTS URN: urn:cts:greekLit:tlg0059.tlg031.
- [53] Plato. *Critias*. Project Gutenberg, project gutenberg ebook edition, 2008. Release Date: August 15, 2008, Last Updated: January 15, 2013. Produced by Sue Asscher and David Widger.
- [54] Z. Sitchin. *The Lost Realms*. Avon Books, 1990. Chapter 7: "The Day the Sun Stood Still".
- [55] T. E. Skeptic. <https://theethicalskeptic.com/>.
- [56] T. E. Skeptic. Exothermic core-mantle decoupling – dzhanibekov oscillation (ecdo) hypothesis, 2024. <https://theethicalskeptic.com/2024/05/12/exothermic-core-mantle-decoupling-dzhanibekov-oscillation-ecdo-hypothesis/>.
- [57] T. E. Skeptic. Hidden in plain sight, 2024. <https://theethicalskeptic.com/2023/12/18/hidden-in-plain-sight/>.
- [58] T. E. Skeptic. Master exothermic core-mantle decoupling – dzhanibekov oscillation (ecdo) theory, 2024. <https://theethicalskeptic.com/2024/05/23/master-exothermic-core-mantle-decoupling-dzhanibekov-oscillation-theory/>.
- [59] sovrynn. Evolving concepts in distributed organizations: Foundation theory. <https://github.com/sovrynn/ecdo/tree/master/0-FOUNDATION-THEORY/s2#duration>, 2025. Accessed: 2025-02-13.
- [60] sovrynn. Saa tipping point calculation, 2025. Accessed: 2025-02-10.
- [61] E. Spedicato. *Homer and Orosius: A Key to Explain Deucalion's Flood, Exodus and Other Tales*, pages 369–374. 01 2009.
- [62] M. Staubwasser and H. Weiss. Holocene climate and cultural evolution in late prehistoric–early historic west asia. *Quaternary Research*, 66(3):372–387, November 2006.
- [63] C. Stone. Nobulart, 2025. <https://nobulart.com/>.
- [64] TalkOrigins. Flood stories from around the world, 2002. <https://talkorigins.org/faqs/flood-myths.html>.
- [65] The Ethical Skeptic. The climate change alternative we ignore (to our peril), 2020. Accessed: 2025-02-10.
- [66] C. Thomas. The adam and eve story, 1963.
- [67] S. Varela, J. González-Hernández, L. Sgarbi, C. Marshall, M. Uhen, S. Peters, and M. McClenen. paleobiodb: An r package for downloading, visualizing and processing data from the paleobiology database. *Ecography*, 38, 04 2015.
- [68] I. Velikovsky. *Worlds in Collision*. Dell Publishing Co., Inc., 1950.
- [69] I. Velikovsky. *Worlds in Collision*. Nicolai Woodenko Library, 1965. Missing pages: 1-2, 37-38, 205-206, 377-378 in the original numbering. Scanned by Internet Archive HTML5 Uploader 1.6.3.
- [70] Z. Wang. A critical analysis of the role of herodotus's histories in representing the conflicts between the persian empire and the greek states. *Journal of Educat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2:279–284, 04 2023.
- [71] F. Waters. *Book of The Hopi*. Penguin Books, 1963.
- [72] K. White. *World in Peril: The Origin, Mission, and Scientific Findings of the 46th/72nd Reconnaissance Squadron*. Self-published, Elkhart, Ind, Elkhart, Indiana, 1992.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s (p. 285-287) and index.
- [73] J. Whitmore. Lithostratigraphic correlation of the coconino sandstone and a global survey of permian “eolian” sandstones: Implications for flood geology. *Answers Research Journal*, 12:275–328, 2019.
- [74] Wikibooks. Chinese stories/nüwa. https://en.wikibooks.org/wiki/Chinese_stories/N
- [75] Wikipedia. Glacial erratic. https://en.wikipedia.org/wiki/Glacial_erratic.
- [76] Wikipedia. Great pyramid of giza. https://en.wikipedia.org/wiki/Great_Pyramid_of_Giza_Interior.
- [77] Wikipedia. Pyramid of khafre. https://en.wikipedia.org/wiki/Pyramid_of_Khafre.
- [78] Wikipedia. Salt mining, 2024. https://en.wikipedia.org/wiki/Salt_mining.
- [79] Wikipedia contributors. Project nanook, 2024. Accessed: 2025-02-10.
- [80] Wikipedia contributors. Ogyges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25. [Online; accessed 10-February-2025].

- [81] Q. Wu, Z. Zhao, L. Liu, D. E. Granger, H. Wang, D. J. Cohen, X. Wu, M. Ye, O. Bar-Yosef, and S. Bai. Outburst flood at 1920 bce supports historicity of china's great flood and the xia dynasty. *Science*, 353(6299):579–582, 2016.